

# 화순 8월 인구 '세 자릿수' 늘었다

###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아파트 입주 등 요인 군, 신혼부부·청년 등 맞춤형 정책 지속 추진

화순군 인구가 8월 말 기준 6만2,439명으로 7월(6만2,131명)과 비교해 308명 증가했다. 전월 대비 인구가 100명 이상 증가한 것은 드문 일이다. 지난해 6월(6만2,654명) 인구가 전월 대비 100명이 늘어난 이후 세 자릿수 증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화순군은 신규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세

대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올해 준공된 1,263세대 규모의 3개 신규 공동주택이 입주를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화순군이 각종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면서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군은 신규 공동주택 입주를 통한 신혼

부부 등 젊은 가족 단위 전입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 이에 발맞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입자를 지원하는 전입장려금, 신혼 부부를 대상으로 5년간 총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금, 출생아 1인 230만 원부터 1,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출산양육지원금 등 결혼·출산·양육에 따른 생애 주기별 지원 시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 개선을 위해 월 최대 15만 원씩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36개월간 지원하는 보증자리

사업, 지역 근로 청년의 안정적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전월세 거주 청년을 위한 취업자 주거비 등도 지원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저출생과 사망자 증가 등 인구 자연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특히, 농촌 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세 자릿수 인구가 증가한 것은 단비 같은 소식이다"며 "화순청년발전 시행 계획 4개 분야 6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추진해 아이 낳고 살기 좋은 화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화순=이종백 기자



이상익 함평군수와 1만번째 관람객 가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 함평자동차극장 누적 1만대 돌파

### 8개월 간 45편 상영...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지난 1월 문을 연 함평자동차극장이 개장 8개월여 만에 누적 관람 차량 대수 1만대를 돌파하는 등 안전한 거리두기 문화 시설로 각광받고 있다. 함평군은 7일 "전국 최고 시설을 갖춘 함평자동차극장 누적 관람 차량 대수가 총 1만대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함평자동차극장 입장 차량 대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기준 총 1만155대가 다녀갔으며, 관람객 수는 1만대 기준(차 1대당 2.5명) 총 2만5,000여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개장 후 식당·카페 등 읍내 요식업종 매출 증가에도 기여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1만번째 관람객은 지난 4일 오후 6시 50분 상영작 '보스베이비'를 관람하려는 김명중씨(목포) 가족이 차지했다. 이상익 함평군수가 직접 현장에서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김씨는 "목포에서 가장 가까운 자동차

극장인데다, 아내와 세 아이까지 5명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어 함평자동차극장을 자주 찾는다"며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엑스포공원 황소주차장 일원에 개장한 함평자동차극장은 개장 8개월여 만에 총 45편의 영화를 상영하며 지자체 행정 혁신 우수사례로 활용되고 있다. 먼저 영화 관람권 판매로 인한 직접 수익과 읍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문화 향유 접근성이 취약한 군민에게 문화복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호평 받고 있다. 또한 엑스포공원 황소주차장을 주차장과 영화관, 비대면 행사장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공간효율성과 영화 관람객에게 함평 관광자원과 역점시책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함평=윤예중 기자



화순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모습. /화순군 제공

## 화순 '생활체육지도자 평가' 전국 1위

화순군체육회(회장 최규범)가 2020년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성과평가에서 농어촌형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대한체육회가 전국 229개 체육회를 대

상으로 실시한 '전국 시·군·구 체육회·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운영 능력 평가'에서 화순군체육회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능력이 인정받았다.

화순군체육회는 ▲체육회 사업역량 ▲참여자 만족도 ▲지도자 성과 ▲지도자 자취취득현황 ▲교육수료 현황 ▲지도활동 진행률 ▲지도능력 등 세부 평가 항목에서 92.77점을 받아 농어촌형 84개 지자체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화순=이종백 기자

## 담양,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가져

담양군이 7일 담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더 좋은 세상, 성평등을 향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개최됐

으며, 최형식 군수와 담양군의회 김정오 의장, 이정옥 부의장, 김미라 의원, 추진순 담양군여성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여성단체 회장, 유공자들이 함께했다. 주제영상시청, 유공자 표창 수여, 기념

사 및 축사로 작은 기념식 순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최형식 군수가 양성평등 유공자 14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양성평등을 위한 유공 표창 수상자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남성과 여성이 조화를 이루며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일남 기자

## 나주, 청년희망학교 개강 공예·요가·그림 등 강좌

나주시는 최근 지역 청년의 역량강화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청년희망학교 하반기 교육 일정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청년희망학교'는 청년이 원하는 수강 프로그램을 관심사와 욕구에 맞게 직접 선택하는 소규모 맞춤형 교육 강좌다. 하반기 교육은 지난 7-8월 강사 공모를 통해 구성된 15개 강좌 중 교육생 40명의 과목 신청을 통해 공예·요가·그림·악기 연주 등 6개 강좌를 최종 선정했다. 강좌명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라탄공예 ▲어서와 우쿨렐레는 처음이지 ▲힐링편안한 요가 ▲나만의 감성소품 라탄공예 ▲쉽게 배우는 기초 크로키반 ▲카드지갑·다이어리·인형소품 만들기 반이다. 교육은 11월 말까지 과목별 10차시에 걸쳐 청년센터를 비롯한 강좌별 지정 장소에서 진행된다. /나주=이재순 기자

## 장성도서관, 문화교실 수강생 모집

장성군이 2021년 하반기 문화교실 운영에 따른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장성군립도서관(중앙·삼계·북이도서관)은 총 29개 강좌로 구성된 하반기 문화교실을 9월부터 12월까지 12주간 운영한다. 중앙도서관에서는 ▲Choy's English ▲꿈지락 미술 ▲과학실험 ▲그림책 힐링지도사 ▲글쓰기 여행 등 14개 강좌를 진행한다. 삼계도서관에서는 ▲베이비블이 ▲3d펜 ▲가죽공예 등 9개 강좌를 진행한다. 북이도서관에서는 ▲독서토론 ▲신나는 역사수업 ▲퀵트 등 6개 강좌를 진행한다. /장성=전일용 기자

## 장성, 깨끗한 마을 만들기 '구슬땀'

장성군민과 공직자들이 힘을 모아 깨끗한 마을 등 주요 생활 환경을 쾌적하게 정비하고 있어 이목을 끈다. 7일 장성군에 따르면 남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과 면 공무원 30여명은 최근 면 소재지와 도로변 일대에서 대대적인 쓰레기 수거 작업을 벌였다. 위원들은 추석을 앞두고 영농폐기물과 각종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남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제상 위원장은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고장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봉사

참여했다"면서 "마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말에는 장성호 마라도지 인근 주민들과 군 공무원이 함께 산책로 등을 찾아 쓰레기를 일제히 수거했다. 환경정화작업에 참여한 마라도지 상가번영회 김중률 회장은 "매주 월요일 오전마다 정기적으로 모여 쓰레기를 치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성군 4-H연합회원 40여명은 지난달 말 총 4회에 걸쳐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장성=전일용 기자

## 클릭! 고향 속으로



### 영광곳간 '착한가게' 현판

영광군이 최근 영광읍에서 희망이 모이는 영광곳간 착한가게 4개소를 대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전달식은 루루part.2(190호점 김희선 대표), 농업회사법인(금근호(191호점 박정 대표), ㈜평성건설(192호점 이규태 대표), ㈜이정건설(193호점 정종석 대표)에서 각각 진행했다.

영광군민들의 따뜻한 관심을 작은 나눔으로 실천하고 싶어 참여했다는 착한가게 대표들은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주변을 살피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준성 군수는 "위기가구를 돕는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더욱 꼼꼼하게 살피고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영광=곽운성 기자



### 함평 읍다면, 화재피해 주민에 온정

함평군 읍다면(면장 정동안)은 7일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지역주민에게 이웃주민들과 기관·사회단체들이 따뜻한 손길을 펼쳐 커다란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읍다면은 주택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A씨 부부에 대한 화재피해 지원금 신청 절차를 안내했고, 함평군은 지난 8월10일 화재피해지원금 500만원

을 이들에게 전달했다. 또한 같은 달 26일에는 읍다면 신계리 발전협의회, 노인회, 새마을부녀회 등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금해 400여만원을 피해주민에게 전달했다. 이어 읍다면 이장단협의회·주민자치위원회·천지농협 등에서도 400여만원을 모금해 총 800여만원의 위로금이 전달됐다. /함평=윤예중 기자



###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 기저귀 기탁

장흥군은 최근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이사장 김종병)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1,000만 원 상당의 성인용 기저귀를 기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네트워크의 성인용 기저귀 지원은 장흥군과 2017년부터 5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져 기저귀가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 22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는 2014년 장흥군의 협약을 거쳐 치아 치료, 성인용 기저귀, 저소득 가정 정기 후원, 주거환경 개선, 생계·의료·주거비, 물품 등 8년째 꾸준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어 장흥군의 복지 향상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는 1997년 인천사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흥=이국현 기자